징검다리 암

고아헤드 문학 0001

징검다리 암

이상조 신앙시집

고아헤드

머 리 말

암은 두려운 존재다. 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암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저 잠자는 사자처럼 일생 동안 깨어나지 않고 잠자는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원하지 않게 암이 깨어난다면 다시 잠재우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이기기 힘든 치열한 싸움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암을 다시 잠재울 수 없다면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전능자를 의지하든지 차라리 암을 껴안고 사랑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암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에게도 불편한 관계이지만 영혼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면 오히려 큰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암은 영생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정리한다.

prologue

Cancer is a scary thing. No one likes cancer. There is no way to avoid cancer. It just want to stay like a sleeping lion for the rest of my life without waking up. If the cancer wakes up unwontedly, we have to either find a way to put it back to sleep, or we have to fight a hard battle to win. Therefore, if the cancer can not be put to sleep again, we will have to either rely on the Almighty who can overcome the cancer or find a way to embrace and love the cancer.

Cancer is an uncomfortable relationship for Christians in this world, but if we use it as a stepping stone for our soul, we will find great blessings. In this book, I am organizing this article with the desire to use cancer as a stepping stone for eternal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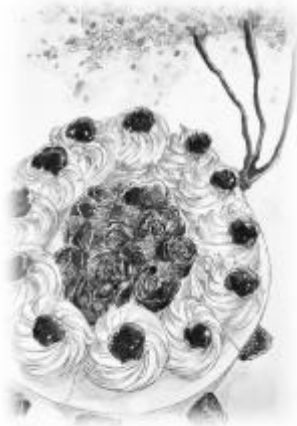
차례 content

004...머리말
005...prologue
012...암의 근원
013...SOURCES OF CANCER
014...암의 발견
016...CANCER DISCOVERY
018...암 암이지
020...AM, YES CANCER
022...암과 기도
024...CANCER AND PRAY
026...암과 재물
027...CANCER AND RICHES
028...암과 종류
029...CANCER AND SPECIES
030...암과 창조
031...CANCER AND CREATION
032...암과 치료
033...CANCER AND TREATMENT
034...암의 교훈
036...LESSONS AND CANCER
038...암의 발견
039...DETECTION OF CANCER
040...암의 배려
041...CONSIDERATION FOR CANCER
042...암의 원인
043...CAUSE OF CANCER
044...암의 진원
045...THE ORIGIN OF CANCER

046...암은 나를 위한 축복
048...CANCER IS A BLESSING FOR ME
050...암의 태동
051...THE BIRTH OF CANCER
052...어린아이와 암
053...CHILDREN AND CANCER
054...암을 가슴에 품은 이어령
055...LEE O YOUNG
056...마지막 시민권
057...LAST CITIZENSHIP
058...암과 고집
059...CANCER AND STUBBORNNESS
060...천국 환송식
062...FUNERAL SERVICE
064...천국은 어디에
066...WHERE IS HEAVEN
068...돈과 천국
070...MONEY AND HEAVEN
072...성경과 기독교인
074...BIBLE AND CHRISTIAN
076...영생과 물질
077...ETERNAL LIFE AND ASSET
078...암의 신비
080...THE MYSTERY OF CANCER
082...종교와 기독교
084...RELIGION AND CHRISTIANITY
086...재물과 친구
087...MAKE FRIENDS WITH WEALTH

088...부자 청년
089...RICH YOUNG MAN
090...암을 극복하는 방법
092...HOW TO OVERCOME CANCER
094...암과 영생
096...CANCER AND ETERNAL LIFE
098...암과 인생
100...CANCER AND LIFE
102...심령이 가난한자
104...POOR IN SPIRIT
106...용서와 천국
108...FORGIVENESS AND HEAVEN
110...그 날이 온다면
111...IF THAT DAY COMES
112...인생은 선물
113...LIFE IS A GIFT
114...가을의 문턱에서
115...ON THE THRESHOLD OF AUTUMN
116...떠나는 날
117...LEAVING DAY
118...나무의 어느 날
119...ONE DAY IN THE TREE
120...치과와 암
122...DENTISTRY AND CANCER
124...첫사랑 재회
125...FIRST LOVE REUNION
126...신비한 질서
127...MYSTICAL ORDER

128...무너져 가는 세포
129...CRUMBLING CELLS
130...위치와 고통
131...LOCATION AND PAIN
132...기회와 선택
133...OPPORTUNITIES AND CHOICE
134...치료하시는 하나님
135...GOD WHO HEALS
136...어느 날부터
137...FROM WHAT DAY
138...떠나는 날을 위한 기도
140...PRAYER FOR MY LAST DAY
142...시집 발간을 축하하며



김소연작품: 새 생명

징검다리 암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 근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을 만들어 창조했다
암 유전자는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변형되어 숨어 있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반역한 루시퍼처럼 아담 이후에 DNA 속에 숨어들어온 것이다
사람이 즐기는 술, 담배, 방부제로 쓰는 AF-2 배기가스 등 암을 자극하는 것들은 세계를 뒤덮고 있다
암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암을 털어낼 수 있는 창조주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 속에 200종류 이상의 암은 흔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살면서 복권처럼 걸리는 암을 두려워하기보다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영생에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육신의 눈 외에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러시안 룻렛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암은 영생을 위한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기회이고 배려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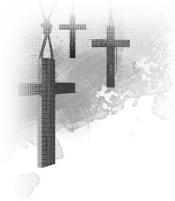
SOURCES OF CANCER

God created the source of all life by making proteins from DNA through RNA.
Cancer genes were modified and hidden in God's creation.
Like Lucifer, who rebelled against God's world, he hid in DNA after Adam.
Cancer stimulating things like alcohol, cigarette es, AF-2 as a preservative, and exhaust gases that people enjoy are covering the world.
Cancer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avoided, but we need a Creator who can shake it off.
More than 200 types of cancer in the 60 trillion cells in a person's body are not uncommon.
We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eternal life, which determines the eternal world, than in fearing cancer like a lottery in this world.
Those who have no spiritual eyes besides the eyes of the flesh are living the same life as playing the Russian Roulette game.
In Jesus, Cancer is the greatest blessing, opportunity, and consideration for those who seek eternal life.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 발견

언제부터 종기가 생기고, 출혈이 멈추지 않고
아프고, 궤양이 생긴다
기침이 나고, 각혈을 하고, 뼈가 아프고, 체중이
감소하고, 식용이 없고, 피곤하다
무엇인가 몸이 이상하다 종양이 암으로 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곧 몸이 죽어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곧 부르심을 느낀다
인생도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젠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암은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
한 기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영생을 준비하는 마지막 보류이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모든 죄를
그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그리고 성도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환원해야 할 것이다
영생을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기본 실천 신앙이다
성도는 눈을 감을 때 심판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능력 뿐이다
예수님 안에서 암은 그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인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우주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암은 영생을 위한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CANCER DISCOVERY

From when it boils, the bleeding does not stop, it hurts, a stomach ulcer develops.
Coughing, keratinization, bone aches, weight loss, inedible and tired
What is strange in the body is that the tumor is struggling to turn into cancer.
Soon the body is dying.
Our lives soon feel called
Life is also coming to an end.
Now the judgment is waiting.
But in Jesus, Cancer is the only period that saves souls.
It is the last hold to prepare for eternal life If we know God who is the Lord of history, believe in His Only Begotten Son Jesus as Lord
and Christ, and be forgiven of all our sins in His name, we will receive the Holy Spirit and become a saint.
And if we become a saint, we must give back all our possessions in this world for our neighbors in need.
It is the basic practical faith of those who are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born again of the Holy Spirit for eternal life. It is the greatest blessing to be led to heaven without going through judgment when the saints close their eyes.

This is nothing more than the power of repentance to wash away sin with the blood of Jesus.

In Jesus, Cancer is what makes that time. So, it is the greatest blessing that God has ever granted.

In Jesus, we will see this beautiful universe through angels before we enter Heaven.

In Jesus, Cancer Will Be the Last and Best Gift for Eternal Life @

김소연작품: 크리스탈 라이프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 암이지

"다들 모여라" 연락이 왔다
시험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셋째 딸도 모였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막내 외에는 온 가족이
다 모였다 비가 그친 오후에는 맑은 하늘 아래
대문 쪽에 서 있는 감나무 잎이 더욱 푸르다
햇살에 아버지 얼굴이 더 밝게 보인다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모른다"고 했다
바람이 살랑살랑 살결을 스칠 때 살며시 눈이
감긴다
아버지는 마루에 둘러앉아 있는 가족을 보고 조
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갔었단다"
아버지가 병원에 갔었던 것은 엄마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왔다"
모두가 놀란 눈치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그래서 모두 모이라고 했는데 이젠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버지! 결과는 암인가요?"
"암 암이지"
갑자기 울음바다가 되었다
아버지 외에는 슬픈 눈물이 시냇물 소리같이 흐른다
아버지는 말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크고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라고 하신다
"나는 이제부터 잔치에 참석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 울고 모두 가거라" 하신다
"암 암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앞산을 타고 뒷산으로 돌아 메아리로 들린다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AM, YES CANCER

"Gather Everyone" came the call
The third daughter, who had no time because of the exam, also gathered.
Except for the youngest who went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abroad, the whole family gathered.
In the afternoon when the rain has ceased, the leaves of the persimmon tree standing on the side of the main gate under the clear sky are greener. Father's face looks brighter in the sun
Ask mom, "Is there anything good for father?"
Mon said, "I don't know."
When the wind blows through the flesh of the flesh, the eyes are closed when living.
The father sees the family sitting around on the floor and speaks in a quiet voice.
"I went to the hospital because I was not feeling well, and the doctor told me to go to the big hospital."
My father had gone to the hospital and my mother didn't know it.
"And the results came out last Friday"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Everyone is quite surprised
"So, I told them all to get together, but it's only a short time away."
"Father! Is the result cancer?"
“Am, Yes Cancer”
it became a sea of crying.
Except for the father, sad tears flow like the sound of a stream.
Father said
"Our God has given me a great and good gift."
He says, "Therefore, it is a matter of gratitude and thanksgiving."
He says, "Stop crying and go all the way because I have to prepare to attend the feast from now on."
"Am, yes cancer" the father's voice echoes back to the back mountain on the front mountain.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과 기도

주님!
암은 나에게 영생을 위한 최고의 배려라고 믿고 싶습니다
암이 있는 기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통증 때문에 또 죄를 범하려고 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해결해야 할 죗값이라면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니 모두 감당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죗값을 해결하는 고통의 대가가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제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룩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심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주님!
참고 이겨서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고통 속에
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지은 죗값을 치르고 영혼을 씻어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할 죗값을 치르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소연작품: 그 나라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CANCER AND PRAY

Lord!
Cancer is the Best Care for Eternal Life for me. Thank You for preparing me to enter heaven during the time of cancer.
But because of the pain, I am about to sin again. Lord!
Give Strength and Courage
It's so painful
But if there is a price for sin that needs to be resolved in this world,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endure it.
Now that the Holy Spirit is present and is walking with me, may it be a blessing to bear all the pain that I can bear and to pay the penalty of all sin that I can enter the kingdom of heaven.
Please give me strength not to sin again and not to break my holy heart.
Lord! I appreciate it. You send the Holy Spirit and strengthens me to win.
Lord!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I will praise you during suffering to overcome and become a holy people of heaven.
Please pay the penalty for my sins through this suffering and wash away my soul so that I may become a holy people of heaven.
May suffering be a blessing to pay the penalty for sin that needs to be resolved in this world.
Amen @

김소연작품: 가을에 깊은 잠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과 재물

암 덩어리를 몸에 달고 행복하게 살 수 없듯이
재물을 남기고 천국에 입성할 수 없을 것이다
암은 제거해야 건강을 회복하듯이
재물은 이 세상에서만 쓰여지는 것이지 남겨 놓은
재물은 영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
오히려 남겨 놓은 재물 때문에 천국 문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물었다
영생을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재물을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다
성도들에게 재물은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지 남겨 놓은 소유는 무서운 재앙이다
재물은 자녀에게 남겨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재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쌓이게 되어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CANCER AND RICHES

Just as I can't live happily with a lump of cancer on my body.
The saints will not be able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leaving their wealth on this earth.
Just as cancer needs to be eliminated to restore health. Wealth is only used in this world, and the wealth left behind has no help in eternal life.
Rather, they may be rejected at the gates of heaven because of the riches they have left behind.
A Rich Young Man Asked for Eternal Life
Jesus, who could judge eternal life, said that all his riches should be given away to his poor neighbors.
If I am not a spiritual person, I can not understand the words of Jesus
So, our Jesus told those who have ears to hear.
For the Saints, wealth is only an instrument used on earth for the Lord's sake, but the possessions left behind
are a terrible disaster.
Wealth is not to be left to family, but to be given away
to a neighbor in need.
The distribution of riches on earth to a neighbor in need
is meant to accumulate rewards in the kingdom of heaven.
The command of Jesus as the Judge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과 종류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암을 심어 놓았다
숨을 쉬는 폐에 폐암으로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에 위암으로
새 생명을 위한 유방에 유방암으로
배설물을 내보내는 대장에 대장암으로
혈당을 만들어 내는 췌장에 췌장암으로
그 암은 사람의 몸속에서 저도 죽고 사람도 죽인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영생을 준비한다
암이 없는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 가기 때문이다

김소연작품: 요리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CANCER AND SPECIES

The evil devil planted cancer in a man made in God's image among God's creations to oppose God.
Breathing into the lungs with lung cancer With stomach cancer on the stomach to digest food
With breast cancer on the breast for new life
With colorectal cancer in the colon that releases feces
Pancreatic cancer in the pancreas, which produces blood sugar
Cancer kills itself in his body and kills that him too.
Therefore, Man struggles to live a little more on earth, but God's man prepares for eternal life in the eternal world Heaven.
In Jesus, the saints are moving into an eternal world Heaven without cancer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과 창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만물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았다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다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사람의 세포
속에 사망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창조의 질서를 어길 때 종양이 생기고 그것이
암으로 변한다
암은 육신을 허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구
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신다
이 기간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CANCER AND THE CREATION

God created man and all things on earth
God made man and said it was very good.
But man has broken a promise to God and sinned
Because of sin, sickness enters the earth, and death reigns.
Since then, the shadow of death has moved in the cells of the man whom God has made by hand.
When the order of creation is violated, a tumor develops, and it turns into cancer.
Cancer is tearing down the body, but God waits for a certain period to save the soul.
God's order of creation, through repentance dur-ing this period, is to prepare for eternal life in Heaven. @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과 치료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
일부 신체를 버릴 수 있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
회개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다
상급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천국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영생을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김소연작품: 브리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CANCER AND TRETMENT

Cancer can be detected early and cured
Even if I can abandon some of my body, I can sustain my life.
If I discover that I have not prepared for eternal life, I can restore it through repentance.
Even if I have a difference in the reward, Heaven
will be able to enter.
We need a hospital that can treat cancer
We Need a Church That Can Restore Eternal Life
Jesus is the only one who decides eternal life
Jesus said that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김소연작품: 테이블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의 교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암이다
영생이 없는 자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왔던 길을 돌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만 가다가 마지막을 맞이한다
인간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이 생이 중요한 것은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단 한 번도 가본적이 없으면서 영생을
이야기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다
기독교는 역사이기 때문에 창조가 있었고 현재
살고 있으며 내일은 다가온다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과 천국밖에 없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내 의지에 상관없이
두 곳 중에 하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성령이다
인생을 통하여 천국에 상급이 있고 지옥에서의
고통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그 암이 나를 위하여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 암이다
예수님 안에서 암은 신앙과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암은 나를 위한 재수다.

김소연작품: 해바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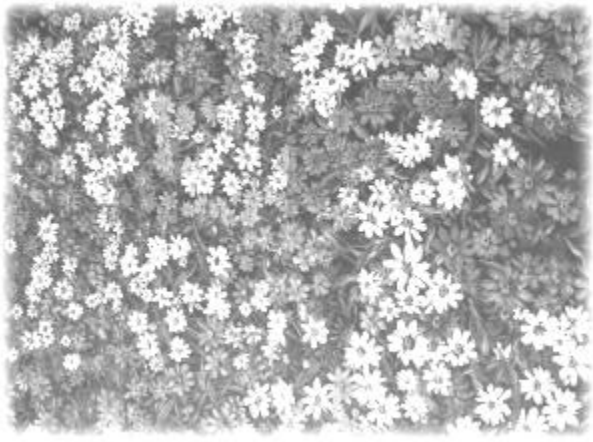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LESSONS FROM CANCER

What everyone fears are cancer.
For those who do not have eternal life, there is nothing more fearful than death.
Human beings can not return to the path that they have come from, but only go forward and come to An End.
Because man has eternal life, life on earth is important.
Man's life is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eternal life.
Religion Speaks of Eternal Life Never Before. Christianity is life not religion
Because Christianity is history, there was a creation, we live now, and tomorrow is coming.
After the death of man, there is only hell or heaven.
When a person dies, one of the two places will be decided, regardless of My will.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is is to believe in God the Creator and in His Son, Jesus.
It is the Holy Spirit who proves that faith.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There is a reward in heaven through life an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suffering in hell.
In Jesus, it is cancer to give opportunities and time for me.
In Jesus, Cancer is the last chance to restore faith and the kingdom of heaven.
In Jesus, Cancer is as like prepare oneself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s for the next chance for me.



김소연작품: 꽃밭에서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의 발견

암은 갑자기 발견되지만 오래전부터 발생한 것이다
암은 일정한 시간을 약속해 놓는다
암은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예수님 안에서 암의 결과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다
예수님 안에서 암은 영생을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이다
예수님 안에서 암은 창조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배려이다
예수님 안에서 암을 발견하는 것은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다

김소연작품: 넓은 우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DETECTION OF CANCER

Cancer is detected suddenly, but it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Cancer promises a certain amount of time
Cancer May Recover Again
In Jesus, the consequence of cancer are a beautiful path to eternal life.
In Jesus, Cancer Is My Best Opportunity to Prepare for Eternal Life
In Jesus, Cancer is the Creator's Best Care for Me
In Jesus, to find cancer is to find the heaven of eternal life.

김소연작품: 가정생활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의 배려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가야하는 곳이 있다
그곳에는 준비된 옷을 입지 못하고 와 쫓겨남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안에서 암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준비한 깨끗한 옷을 입고 영생의 파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주님 안에서 암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이 기간에 잘 준비하면 영원한 나라를 입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도 있다
주님 안에서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배려다
주님 안에서 이 보다 더 고마운 배려가 없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CONSIDERATION FOR CANCER

Life has a place where everyone must go.
There are those who are not dressed in prepared clothes and who are being cast out, and there are those who have turned to themselves because of cancer, repented, put on the clean clothes they have prepare
d, and enter the party of eternal life in Heaven.
In Jesus, Cancer is Your Best Opportunity to Prepare for Eternal Life
If we prepare well during this period, we can enter the eternal kingdom.
By the will of God, we may be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a little more reward in this world.
In Jesus, this opportunity is the best consideration God gives
In Jesus, there is no more thankful consideration than this

김소연작품: 해바라기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의 원인

악성 종양이 생긴다
이 종양이 암으로 변해간다
마귀가 웃음으로 찾아와
영혼을 낚아채듯이 말이다
암 억제 유전자 단백질(P53)도 소용이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암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조심한다고 암이 비껴가는 것도 아니다
악한 마귀가 뿌린 씨앗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면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원인에 목매지 말고
영생을 합격하기 위한 재수(再修)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CAUSE OF CANCER

malignant tumors develop
This tumor turns into cancer
The devil comes with a smile
It's like stealing a soul
The cancer suppressor gene p53 is also useless.
No one in this world knows the cause of cancer
Being careful doesn't mean I can't get away with cancer
Even the seeds sown by the evil devil
If I use it as a time to prepare for my soul in Jesus,
It can be a blessing among blessings
Don't suffer from unknown causes
I shoul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study again
in order to pass eternal life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의 진원

암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암은 변형된 것이다
사람의 욕심 속에서 악한 마귀가 만든 것이다
암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암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생명의 마지막은 처음을
만드신 창조주의 결정에 있는 것이다
암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암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며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기간은 영생을 위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신자가 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THE ORIGIN OF CANCER

Cancer is not accidental
cancer is deformed
It was created by the evil devil out of human greed. Cancer can kill a person's life, and even to God's people, cancer can be life threatening, but it cannot kill the soul.
Only for God's people, the end of life lies in the decision of the Creator who made the beginning.
Cancer tries to kill a person's life, but in Jesus God gives believers time to prepare to enter heaven
This is because the masters of the people of God and the people of the world who live without God are different.
In Jesus, for the man of God, cancer will not be a sorrow, but a joy and a blessing
In Jesus, for the man of God, that period is an opportunity for eternal life.
Sometimes, there are people in the world like fool-ish believers who neglect God's prolongation of life.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은 나를 위한 축복

암은 갑자기 발견되지만 오래 전부터
발생한 것이었다
암은 일정한 시간을 약속해 놓을 수 있다
주 안에서 암은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주 안에서 암의 결과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주 안에서 암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다
주 안에서 암은 축복이다
나의 관리 부족으로 생긴 암이라 할지라도
또는 나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일지라도
주 안에서 암은 영생을 위한 축복이다
인생은 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가야하는 곳이 있다
그곳에는 옷을 입지 못하고 와 쫓아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주 안에서 암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
보고 회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영생의 파티에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 있다
주 안에서 암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주 안에서 이 기간을 잘 준비하면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으며 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나에게는 최고의 배려다
주 안에서 암은 영생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다
주 안에서 이 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다
주 안에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귀한 축복의 기간을 영혼이 없는 사람은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 이 세상을 한탄하면 악마처럼 부르 짖는다
그러나 천국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암으로 겪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할 죄값으로 여기고 하늘이 열리고 아름다운 환영소리가 울릴 때까지 회개하며 영혼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시간이다
주 안에서 암은 영생을 위하여 주어진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CANCER IS A BLESSING FOR ME

Cancer is discovered suddenly, but it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Cancer can make appointments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Cancer can recover in Jesus
The consequences of cancer are the road to eternal life in Jesus
Cancer is an opportunity to prepare for eternal life in Jesus
Cancer is a blessing in Jesus
Even if it is cancer caused by my lack of management
Or whatever my God calls
Cancer is a blessing for eternal life in Jesus
There is a place in life that everyone must go to at least once.
There are people who come without clothes and are driven out.
Because of cancer, there are people who look back on themselves, repent, put on clean clothes,
and get ready for the party of eternal life in Jesus.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Cancer is my best chance to prepare for eternal life in Jesus.

In Jesus, if I prepare well for this period, I can enter the eternal kingdom of heaven, and it is the best consideration for me as it gives me the opportunity to build up a little more reward in this world according to God's will.

Cancer is the best blessing for eternal life in Jesus

There is no blessing more precious than this in Jesus

It is a period of inexpressible gratitude in Jesus. During this precious blessing period, a soulless person cries out like a devil when they lament this world with pain, frustration, and despair.

But those who know Heaven can be thankful

It is a time to consider the pain of cancer as a sin that needs to be solved in this world, repent, and prepare the soul beautifully until the heavens open and a beautiful welcome sound is heard.

Cancer is the greatest blessing given to me for eternal life in Jesus.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의 태동

암은 악성 종양이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은 물이 되는 것처럼
세포주기가 조절되지 않아 악성 종양으로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신자와 같은 것이다
점점 멀어져 가다가 어느 날 원하지 않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예수님 안에서 암을 죽이고 세포주기가 돌아오면
회복하는 것처럼
종양으로 변한 몸이 암으로 변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혼은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암이 더 발달하지 않도록 돌보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로 영혼을 돌 봐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암이 없어지고 영혼이 밝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THE BIRTH OF CANCER

Cancer is a malignant tumor
Just as water becomes rotten if it does not flow.
The cell cycle is not regulated, and it turns into a malignant tumor.
It is like a not good believer who has lost his relationship with God.
It's getting farther and farther away, and one day it will end up somewhere else.
there is no more chance
Just like killing cancer and recovering when the cell cycle returns in Jesus
A body that turned into a tumor turned into cancer
If my soul repents in Jesus, I will possess the kingdom of heaven.
In Jesus, take care that cancer does not develop further,
In Jesus, I must take care of my soul with repentance.
In Jesus, need to manage so that cancer will disappear and my soul will be bright.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어린아이와 암

주님!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암을 주십니까
내가 준 것이아니다
다만 영혼을 지켜 줄 것이다
예수님!
그 어린아이가 당신을 영접하고 거듭난 나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결정한 단다
그러하군요 할 수 있으면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꼭 데려 가시겠다면 천국으로 보내 주세요

김소연작품: 우주 속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CHILD AND CANCER

Lord!
What sin does a young child have to give cancer? not what I gave
I will only protect children's soul
Jesus!
Did that little child receive you and be born again?
It's none of your business. It's my decision.
That's right, if you can, please restore its health,
and if you want to take it, send it to heaven.

김소연작품: 방문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을 가슴에 품은 이어령

인간 이어령이 신자 이어령으로 살다가 성도 이어령이되니 동양의 석학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미 숨어 있었던 암이 상당히 자라고 있었다
그때도 그는 암이 있는 것을 몰랐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 갔을 때에 욥을 비난하던 친구들처럼 예수쟁이 됐다고 욕하던 자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도 거북한 무엇이 암종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라고 표현했을 때에도 숨어 있던 암이 췌장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2007년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고
2010년에 출판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가 세상에 나오면서 2012년 그의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먼저 하늘 나라로 배웅해야 했고
2019년 숨어 있었던 암이 췌장암으로 나타났을 때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라고 하며 영원한 세상을 입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주후 2022년 2월 26일에 날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집으로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황홀한 우주쇼를 구경하며 이 땅을 떠나셨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Lee, O-Young with Cancer in his Heart

When the human Lee O-young lived as a believer Lee O-young and became a saint Lee O-young, oriental scholar the face of Jesus began to appear, the cancer that had already been hidden had grown considerably.

At that time, when he moved from intellect to spirituality without knowing about cancer, he said to those who cursed him for becoming a Christian like his friends who criticized Job, "I think it's because something disgusting is growing like a cancerous tumor in their hearts." it was growing little by little.

In 2007, he became a Christian and was baptized and the book 'From Intelligence to Spirituality' published in 2010 came out. In 2012, he had to see his beloved daughter out to heaven first due to cancer. When he appeared, he said, "Waiting for death, I learned the mystery of birth," and pre-pared to enter the eternal world, and he returned to the house prepared by God the Father on February 26, 2022, the date of which is no longer needed. He left this earth listening to the angels' praises and watching the enchanting space show that his father made.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마지막 시민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한 지구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시민권은 반드시 서로 다른 곳이다
창세기에 아벨과 가인의 관계인 것이다
아벨과 가인은 한 부모 밑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살았다
아벨은 그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가죽 옷을 여호와의 긍휼로 믿었다
가인은 여호와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모든 인간은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벨과 이 세상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는 가인이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벨이 살고 있는 곳과 가인이
살고 있는 곳 이 두 곳 중에 하나의 시민권을 받아
살게 될 것이다
즉 천국 시민권과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의 시민권을
받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은 잃어버린 천국 시민권을 회복할
수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은 천국 시민권을 위한 마지막 배려가
될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LAST CITIZENSHIP

Christians and non Christians live on the same planet, but their final citizenship must be in different places

The relationship between Abel and Cain in Genesis Abel and Cain lived their separate ways under one parent

Abel trusted in Jehovah's mercy on the skin garments He put on his ancestors Adam and Eve Cain lived without Jehovah's will All humans live two kinds of life. They are living the lives of Abel, who thinks of God the Creator,

and Cain, who lives diligently and faithfully for the purpose of this world.

In the eternal world, we will receive citizenship in one of two places, Abel's, and Cain's.

In other words, we will receive citizenship of heaven and citizenship of a place other than heaven.

In Jesus, Cancer will be the last chance to restore lost heavenly citizenship.

In Jesus, Cancer will be the last resort for heavenly citizenship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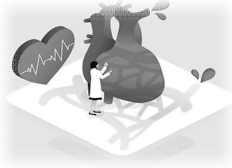
암과 고집

암이 걸렸다고 온 집안이 초상집이다
암이 진행되면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망과 고통이 발광을 하고 있었다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다
얼마전에 그 맛있게 먹던 음식이 독약처럼 먹기 싫다고 했다
음식이 들어가지 못해 죽을 거라면 기도로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영생을 설계하면 좋을 것인데 말을 듣지 않는다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서 고집을 피운다
고집에 원망을 말아먹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고집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CANCER AND STUBBORNNESS

The whole family is a portrait house because they have cancer.
As the cancer progressed, the more painful thing was the inability to eat.
resentment and pain were radiating
I asked him to pray, and he said what good is prayer.
A while ago, he said that I didn't want to eat the delicious food like poison.
If you're going to die because you can't get food, it would be better to look back on your past life in prayer and plan for your eternal life, but they don't listen.
Even during suffering, he is stubborn, unable to overcome himself.
He does not pray even if he eats his stubbornness with resentment
What is scarier than cancer is self will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천국 환송식

찬양이 뜨겁다
기쁨이 충만하다
온 교인들이 춤을 춘다
눈물을 흘리지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린다
내 친구 킹슬리(Kingsley Ogunde David)의 부인
(Hannah Ogunde David) 장례식이다
그녀는 착하고 예쁘고 믿음이 좋은 예수님의 사람
이다 그녀는 암으로 이 생을 다했지만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암을 안고 살았다
그녀는 고통을 찬양으로 이겼다
그녀는 암이 확정된 후에 모든 삶을 정리하며
마지막 이 땅을 떠났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 이 아름다운 우주를
구경하며 주님 품으로 빨려 올라갔다
우리 주님의 배려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풍선을 타고 날듯
이 승천했다 천국문이 보일 때 천군천사가 찬양을
하며 맞이했다 교회에서는 천국 입성 찬양예배로
하늘에서는 천국환영 축제가 열렸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그녀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역사 속에 기록했다

김소연작품: 미지의 세계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FUNERAL SERVICE

praise is passionate
full of joy
All members of the church are dancing
Tears are shed, but we worship happily
This is the funeral of my friend Kingsley Ogunde David's wife Hannah Ogunde David.
She is a good, pretty, trustworthy man of Jesus.
She died of cancer, but she did not suffer
She thanked God to the end and lived with cancer.
She overcomes pain with praise
After her cancer was confirmed, she ended her life and left this land.
The body returns to the dust, but the soul ascends to heaven with the guidance of angels and is sucked up into the arms of the Lord while viewing this beautiful universe.
our Lord cares
Because sh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he ascended to heaven on a balloon.
When she saws the gates of heaven, an angel of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heaven greeted her with praise.
At the church, the entrance to heaven praise service and Heaven welcome a feast in heaven
She recorded this beautiful time in history

김소연작품: 강 건너 마을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천국은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 위에 빛이 있게 하셨고, 물이 있게 하셨고
풀과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살게 하셨다
하늘에 궁창이 있어 광명체들을 만들어 시간 즉
역사를 흐르게 만들었다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를 만들어 다스리게
하셨는데 사람이 죄로 범하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며 살 수 없도록 쫓아내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우리 인간이 쫓겨난 그 실낙원은 어디에 있으며
언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실낙원은 이 우주에 있는데 그곳은 죄가 없으면
갈 수 있고 그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직접 마주
보며 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은 지금 이 우주에 있다
천국은 이 우주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이곳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나 신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성도들만
들어 갈 수 있는 곳이다
주 안에서 암은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며
준비 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영생을 준비하는
축복이며 위대한 배려가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은 실낙원을 찾아 들어가는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것이다

김소연작품: 무제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WHERE IS HEAVEN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for us
He gave light on the earth, and water, and gave life to grass, seed bearing plants, and trees bearing fruit with seed.
There was a firmament in the sky that made lights and made time, history, flow.
He made us in the image of God there to rule over us. Because of our sins, he drove us out so that we could not live there and face to face. To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cherubim and a flaming sword were placed to guard the way to the tree of life.
Where is the Paradise Lost from which we humans were cast out, and when and how can we get there?
That Paradise Lost is in this universe, where we can go without sin, and there we can have a face to face conversation with our God. it is now in this universe Heaven exists now in this universe.
Heaven is a place where only Saints who have been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can enter.
Not church members.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For the unprepared, the last chance to go to heaven, cancer is a blessing in preparation for eternal life and a great consideration in Jesus.
Cancer is one of the blessings of entering Paradise Lost in Jesus.

김소연작품: 숨바꼭질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돈과 천국

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 갈 수 없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 자기 재산이 남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불쌍한 사람은 부자이며 돈이 많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교인들이다
슬기로운 성도는 모든 돈을 자식이 아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미래의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땅에 남아 있는 돈은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인의 기본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주 안에서 암은 자기 맘대로 살았던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돈은 죽으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만 영생을 위하여 마지막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과 배려가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은 재앙이 아니라 영생을 발견하게 하는 위대한 스승이다
그 스승은 돈을 지혜롭게 나누어 주지만 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다.

김소연작품: 생명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MONEY AND HEAVEN

We can't go to heaven with money
Money is just a tool we need to live in this world When we leave this earth, if our property remains on this earth, it will be difficult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That is why it is important to organize the end of life for eternal life.
The lessons of Ananias and Sapphira in history must not be neglected
Foolish people are church members who can not enter heaven because they have a lot of money.
A wise believer gives all money to neighbors in need, not inheritance, and follows the Lord and becomes the promised child of God in the future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 money left on this land should not be inherited but should be distributed to neighbors in need. This is the basis of the heavenly people promised by our Lord.
In Jesus, we got time to look back on ourselves through cancer, living the life we wanted. It makes we think of eternal life, not life.
It is a great blessing and consideration for the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last use of money that is of no use to life when we die for eternal life.
Cancer is not a disaster, but a great teacher to discover eternal life in Jesus
In Jesus, that teacher distributes money wisely, but those who can not enter heaven because of money will weep and grind their teeth there.

김소연작품: 질서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성경과 기독교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만들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 천국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속에서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위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이며 복음이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복음을 전도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상을 간섭하지 않는다
성경은 기독교인을 위한 지침서이지 세상 사람들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위하여 판단하는 책이 아니다
암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리는 것이다
노력하고 주의한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다
암은 육신을 파괴할 수 있지만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암은 잃어버렸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기준을 두지만 기독교인들은 영생에 기준이 있는 것이다
암은 영혼을 회복하는 위대한 스승이다

김소연작품: 일상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BIBLE AND CHRISTIAN

God created all mankind, but because of man's sin, death came in and he was destroyed.

During this, God selected people and gave them the Bible to prepare them for salvation so that they could enter the promised kingdom of God.

God gave the Bible to the people he chose and promised eternal life to those who know and believe in Jesus and follow the promise of his only begotten Son, Jesus, and those who believe and live are called Christians.

For Christians, evangelism and gospel is to introduce God to those who do not know God, who is promised in the Bible for eternal life.

Christians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judge or condemn the people of the world, but they have the authority to evangelize.

Christian prays for the world bu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world

The Bible is a guide for Christians, not a book of judgment for the world.

Cancer is something that everyone gets, regardless of their will.

It doesn't mean that you don't get caught if you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try and pay attention.

Cancer can destroy the body but not the soul Rather, cancer can be a very useful tool to recover the lost soul in Jesus.

The world has a standard based on the flesh, but Christians have a standard for eternal life.

Cancer is the great teacher who restores the soul in Jesus.

김소연작품: 평안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영생과 물질

영생은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은 영생을 위하여 필요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도 물질이 영생을 지배할 수 없다
물질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힘도 없고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질은 이 세상을
떠날때는 무소유가 되어야 천국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사용하고 남은 물질을 모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질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면 그는 죽어도 상급이
없고 그 자녀들은 영적으로 죽는다
실존했던 인물 중에 거지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주는
예수님의 증언이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지만 암으로 기회를 얻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물질을
정리하는 것으로 영생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물질은 영생을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ETERNAL LIFE AND ASSET

Eternal life is not something you can buy
Money can be used as necessary for eternal life, but asset can not control eternal life.
Money has no power when it leaves this world, in fact it can lose eternal life because of it.
All asset used in this world must be empty when they leave this world to become a heavenly person Those who know the Lord's heart have given all the leftover assets to those in need when they left this world. When you do, you will receive eternal life and a reward.
If you give the assets to your children, even if you die, you will not be rewarded, and your children will die spiritually.
Among the real people, the story of Lazarus the beggar and a rich man is the testimony of Jesus that we Christians hear.
It is unfortunate for those who die suddenly, but for Christians who have had a chance due to cancer, it is an opportunity to receive eternal life and a reward by arranging the assets.
Money must become an instrument used for eternal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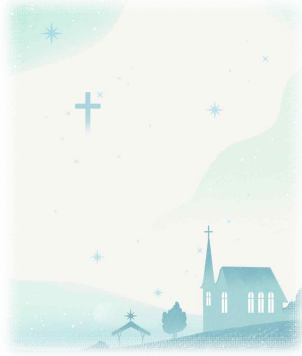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의 신비

우리 인간의 몸은 우주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다
이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질서를 지키며 움직이듯이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를 통하여 수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
지듯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 수많은 세포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진다
우주에 가끔 천둥과 번개가 있듯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암은 우주 속에 일어나는 한 현상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몸 속에 우주처럼 넓은 세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행성이 하나 살아지듯이 암은 세포를 변화시키고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중에 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은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하나님께서 주셨던 깨끗한 영혼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살게 하시지만 죽은 영혼으로 돌아오면
영원히 고통받는 어느 곳에 버려지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죽고 싶다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곳을 피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냈다
예수님 안에서 암은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배려이다
예수님 안에서 암은 메시아를 발견하고 만나고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예수님 안에서 암은 환상적인 우주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THE MYSTERY OF CANCER

Our human body is made on the same principle as the universe.

Just as many planets in this universe keep order and move, our human body is moving countless times through cells.

Just as countless planets are created, disappear, and disappear in this universe, so many new cells are created and destroyed in our human body, and they are created and destroyed.

Just like thunder and lightning sometimes occur in the universe, countless changes occur in our human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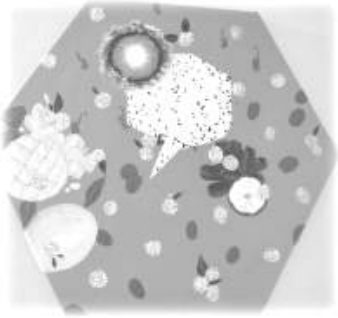
The Creator who made this universe made us humans Cancer is like a phenomenon in the universe. Changes have taken place in cells as wide as the universe in the human body

As a planet comes alive, cancer plays a part in changing cells and turning the body back to the earth.

The human body returns to dust, but the soul sent by God is bound to return.

If someone return to the pure soul that God has

given him, he will live in heaven, but if someone return as a dead soul, he will be thrown away somewhere where he will suffer forever.
It is not a place where you can die if you want to die. So, God the Creator sent the Messiah to escape there.
Cancer is the best opportunity to look at the world of the soul without looking at the body, and it is a consideration in Jesus.
Cancer is the best time to discover and meet the Messiah and restore eternal life in Jesus.
Cancer is the greatest blessing to prepare for a fantastic space journey in Jesus.



김소연작품: 소풍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종교와 기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일반인들이 종교 속에 기독교를 포함한 것뿐이다
책장 속에 꽂혀 있는 종교들 속에 기독교가
있는 것 뿐이다
종교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
이 모이는 것이 대표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 모슬렘, 유대교, 불교, 통일교 등 도서관에
수많은 종교가 꽂혀 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종교를 또 만들어 놓고
종교도서관에 꽂아 놓을 수 있다
종교는 덩치가 있으면 힘이 있어도 영혼이 없는
것이다 종교가 말하는 영혼은 아무도 체험하지도
않고 체험할 수도 없는 무지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다만 BC, AD 역사일
뿐이다
기독교는 지구와 인간의 창조가 있고, 역사 속에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며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아무도 체험하지도 못했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상일 뿐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이 우주에 실존하고 있으며 인간이 죽으면 가는 곳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기독교는 역사이고 역사는 기독교와 함께 진행되어지는 세월이다
이 지구의 종말이 오지만 우리 인생은 영원하다는 것 때문에 오늘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암은 누구에게나 오는 행운이 아니다 그러므로 암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암은 영생을 위한 마지막 최선의 기회요 축복이며 영원한 삶을 위한 최고의 배려이다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RELIGION AND CHRISTIANITY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It is just that ordinary people include Christianity in their religion.
There is only Christianity among the religions on the bookshelf
Religion moves people, so gathering a lot of people is a representative religion.
There are numerous religions in the library of religions such as Christianity, Islam, Judaism, Buddhism, and Unification Church.
A talented person can create another religion and put it in the religious library
Religion is big, strong, but without soul
The soul of religion is an ignorance that no one has experienced and cannot experience.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just history BC, AD Christianity is the creation of the earth and ma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history, and the eternal world.
The ultimate pleasure in religion is nothing but an imaginary created by man that no one has ever experienced and does not exist.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Heaven and Hell in Christianity exist in this universe, and we do not have a choice where we go when we die, but it is decided by the judgment of God who created history, just as we enter through an entrance examination.

Christianity is history, and history is the years progressing with Christianity.

Today's life is important because the end of this earth is coming, but our lives are eternal.

Cancer is not good for everyone. Therefore, cancer is not a curse or judgment.

In Jesus, Cancer is the last and best opportunity and blessing for eternal life, and the best consideration for eternal life.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재물과 친구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부자는 그 청지기에게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청지기는 마지막을 깨닫고 부자의 돈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다
부자는 그 청지기의 일을 기쁘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자가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부자는 자기의 것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했던 것이다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돌아보게 된 것이
부자를 기쁘게 해 준 것이다
암은 청지기가 마지막을 알게 된 것과 같은 것이다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조주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은 마지막을 약속하는 축복이며
기회이고 배려가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
청지기인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WEALTH AND FRIEND

The rich man has a steward, and He has heard rumors that he is wasting His master's possessions.
The rich man gave the steward one last chance to work.
The steward realized the end and made people happy with the rich Man's money
The rich man was pleased with the steward's work, for this was what the rich wanted. The rich man wanted people to live happily with his own
It made the rich man happy that this steward could look back on his last
Cancer is like a steward knowing the end
Because he knew that there was an end, he came to know the heart of the Creator.
Cancer is a blessing that promise the end, an opportunity, and consideration in Jesus.
Cancer is a steward who makes friends with unrighteous riches in Jesus. @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하여는 확신이 없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성경의 말씀 중에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
그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님을 곁을 떠나갔다
주 안에서 암은 재물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생이다
주 안에서 암은 나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거울이요
주 안에서 암은 영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망원경이다
주 안에서 암은 재물 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RICH YOUNG MAN

The rich young man was not sure about eternal life.
He did not know how to obtain eternal life.
Jesus said "you must keep the words of the Bible"
He asked Jesus if there were any words in the Bible that he did not keep. Jesus said, "Sell what you have, give to the poor, and follow me."
The young man was sad and left Jesus.
Cancer is the teacher who makes us know that eternal life is more important than wealth in Jesus
Cancer is the mirror that reveals our essence in Jesus
Cancer is a telescope that lets we see eternal life in Jesus
Cancer is a greater teacher than wealth in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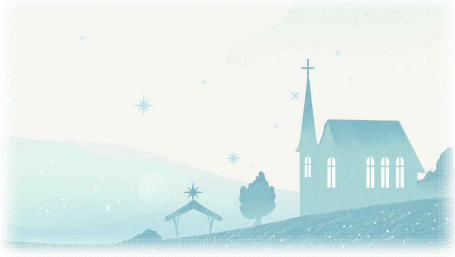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을 극복하는 방법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암을 발견하며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이다
의사는 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다만
암에 대하여 조금 관리할 뿐이다
사람들은 암을 해결할 수 없기에 육신과 영혼을
포기하며 몸부림친다
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만들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암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면 된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것은 오직 기도와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며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축복과 영생에 있는 것이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축복이다
암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영생을 알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을 극복하는 방법은 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은 축복이며 기회이고 배려이다.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HOW TO OVERCOME CANCER

There is no way to beat cancer
Detecting cancer and looking at yourself first
And finding someone who can cure cancer
A doctor is not a person who can solve cancer, but only manages the cancer a little more
People struggle by giving up their bodies and souls because they cannot cure cancer.
The only one who can cure cancer is the Almighty God who made our human bodies. Because God is omnipotent, the only solution We just need to depend on God, pray, and do whatever we want.
We must not mistake our own will for the will of God.
Everyone is different, but God has the answer.
To know the will of God is to know in the heart through the Holy Spirit only through prayer and the Bible.
The heart must believe in Jesus so that we can know God, and we must become the center.
If we believe in Jesus, we will receive the Holy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Spirit, and through the Holy Spirit we will be able to know the will of God.

God is not a judgment, but a blessing, and not happiness in this life, but in eternal life, the blessing of the eternal kingdom.

Eternal life is a true blessing not experienced in this world

Cancer is the way of blessing to know God, to believe in Jesus, to receive the Holy Spirit, and to know eternal life in Jesus.

The way to overcome cancer is to know God's will through cancer

Cancer is a blessing, an opportunity, and a consideration in Jesus. @

김소연작품: 무관심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암과 영생

암이 걸린 사람이 많다
암의 종류도 많다
암의 원인도 많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많다
그러나 사람들은 암을 잘 모른다
암을 전문하는 병원도, 의사도 다 모르기 때문에
암은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암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암이 두렵기때문에 슬픔과 괴로움으로 고통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이 없기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영생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모른다
영생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뿐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암은 누구에게나 있고 발견되기도 하지만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암에 대하여 의사의 손을 사용하시든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관계하신다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암은 영생을 준비하는 최고의 기간이다.

김소연작품: 유혹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CANCER AND ETERNAL LIFE

Countless people have cancer
There are countless types of cancer
There are countless causes of cancer.
There are countless ways to treat cancer.
It's because they don't know about cancer.
Because neither hospital specializing in cancer nor doctors know it, there are many and more.
People afraid because they don't know about cancer
And to suffer with sorrow and anguish because of fear
The reason you suffer is because there is no eternal life
Those who do not have eternal life do not know eternal life.
Eternal life is unknown to anyone, but only through God.
Because God is the only Almighty One who know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ose who know God are not afraid of cancer because they believe in God.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Cancer is common to anyone and can be discovered, but God can also cure and recover. Because God is Almighty

Whether the doctor uses his hands or the gift of the Holy Spirit, God can do it, but God only has to do with God's people.

In Jesus, Cancer is the best time to prepare for eternal life. @

김소연작품: 새로운 세상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인생과 암

인생에서 삶이 바쁘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지나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돈을 위하여, 학벌이나 명예를 위하여 미친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속이면서 이웃을 속이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
질서도 무시하고 욕심에 끌려 미친듯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목적을 이루면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암을 발견하게 되었다
암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암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기도 하고 무관심 했던 죽음 이후에 세계를 생각하게 되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성경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라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동안 영생을 모르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미친
듯이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을 통하여 미래와 영생을 알게 된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을 통하여 인생을 정리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축복이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암은 모두 살아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제는 영생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주 안에서 암은 인생에서 영생을 발견하는 위대한
선물이었다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LIFE AND CANCER

In life, there are people who live without hesitation because life is busy.

People who live too much according to the greed of this world

There are people who live frantically for money, for education or for fame.

There are people who deceive themselves and deceive their neighbors to get money.

Ignoring order and being driven by greed, living like crazy

He thought that if he achieved his purpose on this earth, he would have a wonderful life. That's how he discovered cancer.

It was through cancer that he discovered that all his efforts in this world were to no avail. It was through cancer that he was able to look back on himself.

It made him think about the future and think about the world after death when he was indifferent.

In the Bible, Jesus said,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en a man

found it, he hid it, and rejoiced, went back, and sold all that he had and bought the field."

He discovered that the life he had lived madly for a purpose in this world without knowing eternal life was wrong.

In Jesus, through cancer, he knew the future and eternal life.

The period of arranging life through cancer and preparing for eternal life was a blessing in Jesus. By the grace of Almighty Jesus, all cancers were cured, and health was restored.

Now he is living his life for eternal life.

Cancer was a great gift to find eternal life in his lifetime in Jesus. @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우선이었다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었다
어디에서도 겸손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어른도 없고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
교만하고 교활하며 경솔하고 못된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날 그에게 암이 발견된 것이다
처음에는 암도 이길 듯이 발광을 하다가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죽음이 두려웠다
죽음 이후가 불확실하니 더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영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자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셨다
암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을 통하여 영생을 알게 된 것이다
주 안에서 암을 통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영생을 약속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
주 안에서 암은 위대한 선물이며 영원한 선생이었다.

김소연작품: 기와집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POOR IN SPIRIT

Someone only knows himself.
everything comes first for himself
He is the smartest, the greatest, and the best for himself
He never been humble
He has no God, no admirer, only himself.
arrogant, cunning, frivolous and stubborn for only himself
One day he was diagnosed with cancer.
At first, it glowed as if it would win over cancer, and then slowly started to put it down.
He discovered what he couldn't do on his own
He was afraid of death
He felt like he was going insane because of the uncertainty after death
When he was restless and afraid, he thought of eternal life
A person who knew nothing but himself had a poor heart
Jesus said in the Bible,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He thought of the words of Jesus through cancer He came to know eternal life through cancer in Jesus.
Cancer made him feel poor in Jesus.
Now he is living as a good Christian who has been promised eternal life.
Cancer was a great gift and an eternal teacher in Jesus.

김소연작품: 은혜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용서와 천국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화를 견디지 못했다
그는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했다
그는 건강했고, 돈도 있고,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어느 날 그에게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은 착하고 원수는 악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암이 걸리고 원수는 더 잘살고 있다고
원망했다
그는 화를 이기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할 생각도 했다
암이 고통스러웠다
원수보다 암이 더 고통스러운 것을 깨달았다
암의 고통이 원수보다 더 무서운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았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 놓았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쉴 수 있는 마음을 발견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원수가 잘 못한 것보다
자신이 더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았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 뒤에 오는 세계에 대하여 생각했다
어느 종교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해결해 주는 곳이 없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교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알았다
주 안에서 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는 영생을 얻은 기쁨에 비하면 암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 안에서 그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성경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 안에서 암은 그에게 영생을 발견하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김소연작품: 미지의 세계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FOGIVENESS AND HEAVEN

Unforgivable man!
He said he could never forgive.
That person said that everything was unfair
he couldn't stand his anger
He promised to take revenge
He was healthy, he had money, and he tried to get revenge.
He thought he was the most unfortunate person in the world.
One day, found him to have cancer
he couldn't believe himself
He thought he was good man, and his enemy was evil.
He complained that he had cancer and that his enemy had a better life.
he couldn't get over his anger
He even contemplated suicide
cancer was painful
He realized that cancer is more painful than the enemy
He learned that the pain of cancer is more terrify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ing than the enemy
he knew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he finally put everything down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he found a heart where he could rest
Looking back on his life, he realized that he had lived more wrongly than his enemies did.
With death in front of his eyes, he thought of the world after death.
No religion has a solution to the world after death He went to a church he had been indifferent to
There, he knew Jesus and knew eternal life. In Jesus, he prayed for his enemies
The pain of cancer was nothing compared to the joy of gaining eternal life.
In Jesus, he felt real happiness
In the Bible, Jesus said, "So will my heavenly Fa-ther do to you, unless you forgive each of you his brother from the heart."
Cancer was the best gift that made him discover eternal life in Jesus.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그날이 온다면

주님!
나에게 그것이 온다면
세상적으로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언어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죄까지도 찾아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재물과 소유물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서 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듯이
나도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겠습니다
마지막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암을 발견하게 한 것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배려라고 믿겠습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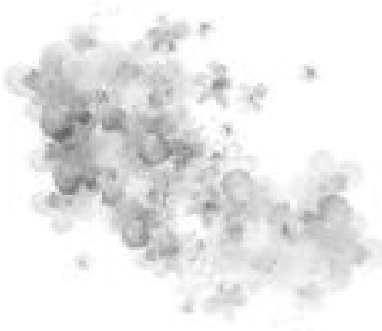
IF THAT DAY COMES

Lord!
if it comes to me
I'll let go of everything I've been doing in the world
And I will find and repent of even the sins that are hidden deep in my thoughts, heart, habits, and language.
And I will organize all the wealth and posses-sions I have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those in poor people.
And I will strengthen my faith and go out into the streets to preach the gospel of the Lord.
As you confess me before God the Father, so I will confess to all men the Lord Jesus Christ, the only begotten Son of our God.
I will prepare to return to a holy life so that I can build up the final reward.
I believe that giving Cancer for that day is the best gift and consideration for me.
I will praise the Lord until the last day I leave this earth. Amen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인생은 선물

좋은 친구(Richard Hobbs)가 떠났다
암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나니 암도
떠난 것이다
눈물이 보석 되어 빛난다
슬퍼했던 기억이 나비 되어 춤춘다
어깨를 펴고 자랑했던 행복이 힐끗힐끗 쳐다본다
희로애락이 한곳에 모여 날 위해 공연을 한다
인생은 선물인데 홈레스처럼 외면했었다
어제 함께 웃어 주던 그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조금전에 떠났다
예수님 때문에 암이 없는 행복한 세상으로 간 것이다
다시는 약속이 없다
지금 이순간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선물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LIFE IS A GIFT

a good friend (Richard Hobbs) left
He didn't go away from cancer, but because he left, the cancer also left.
Tears become jewels and shine
Sad memories become butterflies and dance
The happiness that he was proud of with his shoulders spread out glances at him
The joys and sorrows gather in one place and perform for me.
Life is a gift, but I ignored it like a homeless
The one who laughed together yesterday left a while ago to a place that can not be found on this earth.
To a happy world without cancer because of Jesus
no more premises
there is only this moment
So, life is a gift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가을의 문턱에서

몸이 가을이라도 마음은 봄이다
편안한 겨울이 오기 전에 뜨거운 여름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아쉬운 인생을 뒤돌아보는 가을 문턱에서
뒤돌아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을 더 걸어가겠다
가슴 속에 숨겨진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다
주님의 손을 믿는다
떨어지는 낙엽이 봄 아지랑이처럼 날아간다
휘파람 소리가 멀어져 간다

김소연작품: 사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On the THRESHOLD OF AUTUMN

Even if the body is autumn, the mind is spring I hope the hot summer comes once more before the comfortable winter comes.
At the threshold of autumn looking back on my regretful life, I will look back and take one more step with a happy smile.
I will live as if there is no cancer hidden in my heart
I believe in the hand of the Lord
Falling leaves fly away like a spring haze
The whistle goes away

김소연작품: 이상조목사의 어머니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떠나는 날

숨을 쉴 수 없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깨끗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불어왔다
눈이 열리고, 맑고 빛나는 세계가 열리고,
예쁘고 고운 얼굴에 미소를 띄운 천사들이
수 없이 내려와 노래를 하며 맞이해 주었다
상하좌우를 보아도 어둠이 없고, 그림자도 없고
맑고 빛나는 금은보석으로 단장된
아름다운 궁전과 같았다
아름답게 새로 지어진 내 집이 있고
생명수 강가도 있었다
집 앞에 있는 흰색 돌에 금빛으로
내 이름이 기록 되어 있었다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된 때는 암으로 마지막을
정리할 때였다고 했다
떠나는 날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LEAVING DAY

When I couldn't breathe, a clean and beautiful fragrance came down from the sky.
My eyes were opened, a clear and shining world was opened, and countless angels with smiles on their pretty faces came down and greeted me with songs.
It was like a beautiful palace adorned with gold and silver jewels, with no darkness, no shadows, clear and shining from up and down and left and right.
I had a beautiful new house, and there was a river of the water of life.
My name was written in gold light on a white stone in front of the house
Said that the time my name was written there was when I was cleaning up with Cancer
The day I left was the day I entered heaven.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나무의 어느 날

나무는 외롭게 보이도록 서 있다
그래서였을까
바람이 찾아와 놀아주고
가끔 새들도 찾아와 놀아 준다
그러다가 나무는 심하게 몸을 흔들면 하늘이
곧 눈물을 흘린다
나무가 슬퍼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 전에
그의 마음을 알고 있는 나무가 고통스러워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어느 봄날 따뜻한 햇살에 나무는 새근새근 잠을 잔다
조그만 새들이 깨우려 해도 나무는 깊은 잠에
빠져있다 나무는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며 바람이
찾아올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
햇살도 조용히 그 주위를 맴돈다
주위는 평화롭고 잠자는 나무의 모습은 아름답다
그 나무속에서 암이 성장하고 있어도 나무는
모르는 것처럼 자연에 순종하고 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나무속 그곳에도 빗물이 젖는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ONE DAY IN THE TREE

The tree is standing so that it looks lonely
So maybe?
The wind comes and plays
Sometimes birds come and play too.
and then
When the tree shakes violently, the sky soon sheds tears It's not that the tree struggles because it's sad Even the tree that knows his heart before the sky weeps
and weeps, and writhes in pain.
One spring day, in the warm sunlight, the tree sleeps softly.
The little birds try to wake him up, but the tree is in a deep sleep.
The tree quietly waving its leaves and won't wake up until the wind blows
The sun quietly hovers around it
Peaceful and the sleeping tree is beautiful
Even though cancer is growing in the tree, the tree obeys nature as if it did not know it.
rain from the sky Rainwater gets wet even there in the trees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치과와 암

치과를 가서 의자에 앉으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
안 아프게 해달라고 두려워서 하는 기도다
치료 도구 소리가 날카로운 전기 톱날이 돌아가는
소리처럼 귓가에 들린다
꾀병이라도 부리면 이빨이 부서지거나 혀나 이빨
주위가 톱날에 상할까봐 가능한 참는다
오늘은 마취가 잘못되어 그 이빨 근처에 기계가
와도 참을 수 없도록 신경이 아프다
짧은 시간이지만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 할지 두려웠다
독립운동하다가 고문을 당한 봉천 감리교회
김오봉 목사님은 어떻게 일본 순경들의 고문을
참을 수 있었을까 눈물이 났다
암환자 중에 암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암으로 인하여 당하는
죽음의 두려움보다 그 고통이 더 두렵다고 할까
지금은 두려웠던 치과 치료가
먼 옛날이야기처럼 되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김오봉 목사님의 고문도 역사 속으로 살아졌다
오늘의 고통이 두렵지만 그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이 영생을 얻지 못한 영원한 고통이다
그곳을 이 우주에 존재하는 지옥이라고 말한다
암이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고통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암을 통하여 잃어버린 천국을 찾는 것은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의 결정되어질 실존하는
영원한 삶이다
치과의 고통이 잠시인 것처럼 암의 고통은
잠시지만 그 기간에 나의 영혼을 돌아본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과 기회가 없다.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DANTISTRY AND CANCER

When I go to the dentist, I sit in a chair and pray nonstop.

It's a prayer I pray because I'm afraid that it won't hurt The sound of the treatment tool is heard in the ear as a sharp chainsaw blade turning

Be patient as much as possible, fearing that if I cheat, my teeth will break or my tongue or the area around my teeth will be damaged by saw blades.

Oneday, the anesthesia didn't go well, so even if the machine comes near the tooth, the nerve hurts unbearably.

It was a short time, but I was afraid of how long I would have to endure this pain

Pastor O-Bong Kim of Bong Cheon Methodist Church, who was tortured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in tears as he wondered how he could endure the torture of Japanese police officers.

It hurts my heart to think of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cancer among cancer patients.

How painful would it be to fear the pain more than the fear of dying from cancer?

Dental treatment, which was feared now, has become a thing of the past.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Pastor O-Bong Kim's torture survived through history

I'm afraid of today's pain, but what I fear more than that is the eternal pain of not gaining eternal life.

It is said to be a Hell that exists in this universe. Even if cancer is painful, it can not be compared to the pain of Hell.

Finding the lost heaven through cancer will be an irreplaceable joy given this world.

Heaven and Hell are existential eternal life to be decided after death

Just as the pain of dentistry is temporary, the pain of cancer is temporary, but if I look back on my soul during that time, there is no greater blessing and opportunity than that.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첫사랑 재회(再會)

다시 만나지 않았어야 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없는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어야 했다
첫사랑의 아름다움은 재회를 통해서 찢어지고
구겨져서 가슴 속 깊이 숨어 있었던 그리움은
더 이상 나오질 않는다
마음속에 걸어 놓아 노랗게 변한 사랑이
더 순수했었다
이미 깨진 그릇은 잊어야 한다
이미 엎어진 물은 씻어내야 한다
첫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는 맥박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첫사랑!
재회를 하지 않을 때 아름다운 앨범 속 추억이었다
첫사랑은 재회를 통하여 암이 되었고
그 암은 첫사랑을 데리고 운명하였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FIRST LOVE REUNION

I shouldn't have met again
I shouldn't have seen with my own eyes the love that wasn't in her heart.
The beauty of first love is torn and crumpled through reunion, so the longing that has been hidden deep in my heart no longer comes out
The yellowed love I hung in my heart was purer
Forget about broken bowls
The spilled water must be washed away
When first love was in my heart, I could hear my heartbeat
first love!
It's a memory in a beautiful album when we don't meet again
First love become a Cancer after reunion
That Cancer died through first love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신비한 질서

하나님께서는 세포를 모아 사람을 만드시고
유전자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성장하게 하시며
각각 임무를 따라서 화학물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때가 되면 다음 생산되는 세포를
위하여 죽기도 한다
이 신비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며 성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여
모인 것들이 암세포인 것이다
암은 질서를 이탈한 루시퍼 같다
암세포가 회개하지 않고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면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보냄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이 신비한 질서는 맑은 영혼이 아니면 알 수도
또는 볼 수도 없다
이 신비한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MYSTICAL ORDER

God gathers cells to make people, grows under the strict control of genes, produces chemicals according to each task, moves, and when the time comes, he dies for the next cell to be pro-duced.

The God who created this mystical order allows us to live and grow our lives beautifu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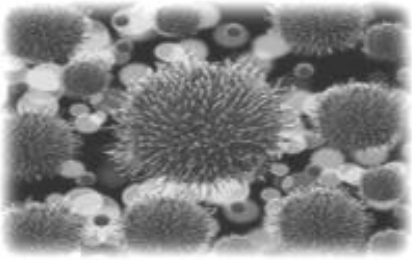
Those gathered by destroying the order of God the Creator are cancer cells. Cancer is like Lucifer out of order.

If cancer cells do not repent and restore order, the body prepares to return to the dust, and the soul returns to the presence of God the Father. This mystical order can not be known or seen without a clear soul This mystical order is the heart of God the Creator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무너져 가는 세포

암은 유전자가 망가진 세포들의 모임이다.
이 암세포는 더 빨리 쉬지 않고 분열한다
미친듯이 분열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화에
못이겨 분열하다 스스로 죽기도 한다
그 악성 암, 즉 악성 종양은 온몸으로 퍼지면서
정상적인 세포들을 공격한다
창조주 하나님 질서를 이탈한 루시퍼처럼 변한다
마약에 취한 마약 중독자처럼 미치게 분열하다가
다른 세포들까지 죽음으로 끌고 간다
암은 다른 세포와 함께 섞이고 자라며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며 무너져 가는 세포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CRUMBLING CELLS

Cancer is a collection of cells with damaged genes.
These cancer cells divide faster and non-stop Because they divide like crazy, they can't even overcome their anger and they even die when they divide.
Malignant cancer, or malignant tumor, spreads throughout the body and attacks normal cells. Becomes like Lucifer who broke out of God the Creator order
Like a drug addict on drugs, it divides madly and drags other cells to death.
Cancer is a crumbling cell that mixes with other cells, grows, and destroys healthy cells.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위치와 고통

암이 몸 속에서 광란을 부린다 할지라도
다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암의 위치에 따라서
고통의 강도가 있는 것이다. 어떤 곳은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암이 폐나 간으로 전이되면 암
말기에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지만 영원을 모르는 사람은
이 고통을 통하여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망을 해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없을까? 문둥병자의 고통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몸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아빠는 딸이 아프다고
말하는 그 소리가 그립다고 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다. 인생은 살아
있을 때의 결과로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이다. 고통이 힘들지만 그
고통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살아 있는 것 때문에 영생을 위하여 기회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암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맞이하는 결과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LOCATION AND PAIN

Not all cancers are painful, even if they run rampant in the body.
The intensity of pain depends on the location of the cancer.
Some places may bleed, but if the cancer spreads to the lungs or liver, the pain is unavoidable at the end of the cancer.
This suffering can not be compared with eternal suffering, but those who do not know eternity may blame themselves through this suffering.
But if the pain doesn't go away even if he resent it, can't he be grateful for what he can feel?
It was said that the pain of a leper was that he felt no pain and his body was broken.
The father who has lost his beloved daughter said he misses the sound of his daughter saying that she is sick.
Feeling pain is proof that he is still alive
There is an opportunity because life is what determines eternal life because of being alive.
Pain is difficult, but if he can confirm that he is alive because of that pain, and if he get an opportunity for eternal life because of that life, what could be more precious than this?
Cancer is scary, but even more terrifying than that fear is the consequences of not feeling pain. @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기회와 선택

암을 선택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암을 피해 갈 수 있는 길도 없다
다만 상식과 노력을 통해서 피해 가기를 바랄 뿐이다
암은 원죄의 뿌리처럼 혈통적인 유전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과 습관이 암을 더 자극하여
깨울 수 있다
환경, 식사, 불규칙적인 생활, 담배와 지나친
음주 등 세포의 질서를 파괴한 종양처럼 습관이
암을 깨울 수 있다
일생동안 암을 깨우지 않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OPPORTUNITIES AND CHOICE

No one chooses cancer
But there is no way to avoid cancer.
We just hope that it can be avoided through common sense and effort.
Cancer has a pedigree, like the root of original sin.
But our lifestyles and habits can further stimu-late cancer and wake it up
Habits can wake up cancer, such as tumors that disrupt cell order, such as environment, food, irregular lifestyle, tobacco, and excessive drinking.
We will need wisdom and prudence to not wake up cancer throughout our life. @

김소연작품: 샐러드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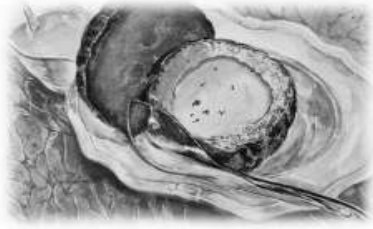
치료하시는 하나님

암은 치료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실 때
치료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아 주신 의사의 손은
통하여 암은 치료될 수 있다
암은 약으로 회복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
의 손으로 만들어 주신 약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육신의 치료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고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GOD WHO HEALS

Cancer can be cured
Just as when the Almighty Jesus touched his hand and said, "I want to, be cleaned," and it was healed, cancer can be cured through the doctor's hand that Jesus held.
Cancer can be treated with medicine.
Just like the Almighty Jesus "spit on mud and smeared it on his eyes," it can be cured through the medicine Jesus made with the hands of the chosen one.
More important than healing is restoring faith in Jesus.
It is more important to heal the dying soul and restore eternal life than to heal the body.
Our Jesus is the God who heals.



김소연작품: 호박죽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어느 날부터

어느 날 병원을 다녀오더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암이 발견된 것이다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빚이 있는 자들을 불러 돈을 갚았다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을 찾아가 용서를 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얼굴이 밝아지고 사랑이 풍성해졌다
화를 내거나 싸우는 일이 없어졌다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얼굴에 보름달 같이 밝은 빛이 돈다
미소가 아름답다
찬송 소리가 맑아졌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곳이 천국이 되었다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
천국 문이 보인다
천군천사가 주위를 돌며 찬양을 한다
영혼이 밝아지니 몸도 더욱 건강 해졌다
천국에서의 상급을 위하여 회복해 주신 것이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FROM WHAT DAY

One day, after visiting the hospital,
the quiet prayer time increased.
cancer was discovered
start tidying up
Called those who were in debt and paid them back He went to the people He couldn't forgive and forgave them.
More time to spend with family
His face brightens and his love abounds
No more getting angry or fighting
don't say bad things
A bright light shines like a full moon on his face smile is beautiful
The hymn became clear
A place never seen before has become a paradise has a beautiful scent
He sees heaven's door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떠나는 날을 위한 기도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부르실 때가 되거든 반드시 암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암을 주실 수 없을 테니 암이
움직일 때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족한 종이 항상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입시를 위하여 개인 교습을 받는 심정으로
천국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족한 종이 지난 과거 중에 회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모두 찾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굳건 한 반석으로 만들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못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겠습니다
복음과 전도가 부족했다면 길거리에
나가서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주님!
암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절규
하셨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 외침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죗값으로 여겨 그 고통을 안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이종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당하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예비고사를 통과하고 천군천사가 내려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암이 원수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소연작품: 딸과 조카

암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니라.
[요한복음 14:14절]

PRAYER FOR MY LAST DAY

Lord!
I love you as you love me.
Lord!
When the time comes to call me, be sure to wake up Cancer
Our Lord can't bring Cancer, so please wait until the cancer moves
Because I have many shortcomings, there may be things I am not prepared to enter into heaven.
I want that period to be the closest time of my life to be with our Lord.
I will prepare for heaven with the feeling of receiving private lessons for the entrance exam.
During that time, I will seek forgiveness for any unrepentant parts of the past.
If I lack faith, I will make the faith a solid rock during that time If I have not filled it with the Holy Spirit, I will fill it with the Holy Spirit.
If I lack the gospel and evangelism, I will go out on the streets and preach the gospel of our Lord.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절]

Lord!
If I feel pain because of cancer, I will remember the cry of you my Lord, "Eli, Eli, Nama,
Sabachthani," and I will praise my suffering as the price of a sin that I must solve on this earth.
Lord!
Allow me to convey my heart to those who are struggling with cancer.
If they need help, I will be a good Samaritan so that I can pray with them and have hope to-gether.
When I pass the preliminary exam and when the time comes when the angels of heaven come down and enter the kingdom of heaven, I will immediately recognize the bright face of our Lord Jesus.
When You my Lord call me, I will think of can-cer as a blessing that gives me a chance, not as an en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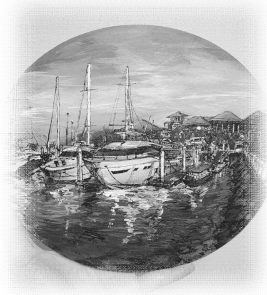
김소연 화가 또는 디자이너는 특별한 미술 기법과 재능이 있어 시각적인 문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고아헤드 총재 이상조 목사
징검다리 암

시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은지(의료사고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암이라는 질병이 고통과 슬픔이 되어 사람들을 절망에 빠질 수 있게 하는데, 그 고통을 축복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희망과 위로가 담긴 글이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아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탄과 절망에서 빠져나와 위로와 용기가 되어 주심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걷게 될 수 있는 지표가 되길 바랍니다.



김소연화가: 주님의 손

홍일권（초록편지 & 초록 네트위크 대표, 대한 시문학협회 부회장역임）

시민들은 제각기 지성을 가지고 고상하고 품격 높은 시를 그려내는 데 주력한다.
그 심성과 깊이를 보고 평가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에 이상조 시인이 그려낸 시는 지성을 넘어 그야말로 깊은 고뇌와 사랑의 진액에서 흘러나온 힐링의 시이다. 암 환자의 아픔을 알고 그 심성에 맞닿아 하늘의 소망 밧줄로 연결하여 재현해 낸 위로의 시요 치유의 시요 소망의 시다
지금까지 명시인들을 통해 숱한 시알들이 태어났지만 이번처럼 암환자의 고뇌와 격려와 치유를 일으키는 시는 드물었다. 이런 힐링의 시는 치유시문학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가는 선각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가 암과 기타 질환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새벽별 같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리라 기대하며 적극 추천한다.

김청 (기네스 마술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상조목사님의 "징검다리 암"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암,
암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인생이지만 암으로 인해 천국 소망과 영생 소망의 징검다리로 여긴다면 오히려 더 값진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암으로 인해 더 겸손해지고 더 베풀고 더 포용력으로 감싸 안은 값진 삶이 되길 소망하며 천국 소망이 모든 이들에게 영혼의 울림이 되는 "징검다리 암" 시집 적극 추 천합니다.

Rev **Dr. Umesh Nandkumar** PHD

(Recommendation)
Congratulations to Pastor Phillip Sang Cho Rey for this encouraging book titled "Cancer as a Steppingstone for Eternal Life"
I know this book will be greatly help those who are struggling and battling with cancer".

유영대 (국민일보 기자)

시집 **'징검다리 암'**은 암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암을 통하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암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암을 이기고 정복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강한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암을 통하여 예전에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또한 암을 통해 사후 세계인 천국과 영생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길 기원합니다.

이지영(닥터이지치과원장,의학박사)

치과의사로서 24년 이상 오랫동안 진료하다 보니, 간혹 치과의학 의술로서는 해결 안되는 것들이 창조 주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다. 암도 일반 질병 중에 하나라고 믿고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반드시

이겨내는 당신이 되길 바란다.
현대의 의술을 뛰어 넘고 의학적 이론을 무너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여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전용진 선교사역자 (전 대한체육회 카라테-2020도쿄올림픽 정식메달 종목-서울특별시연맹 부회장)
Yong Jin Jhun(Kang)

<고아헤드> 이상조목사님의 신앙 시집이 '나'는 예외라고 결단코 장담할 수 없는 '암'관련이기에 사뭇 각별하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더구나 몸속 1^0의 온도 상승이 면역력 5배이상의 효과로 암세포를 소멸시킨다는 정설의 의학 정보인 것처럼 누구나 암세포는 갖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마음의 온기로 온갖 병의 근원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단번에 녹일 수 있는 묘약이 바로 온화하신 성품으로 늘 고아들을 섬기시며 하나님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삶에 나눔으로 앞장서서 언제나 한결같으신 이상조 목사님의 이번 신앙 시집이기에 더욱 감동이라 감사하며 적극 추천드립니다.

임승훈 목사 (한부모 가족 돌봄 센터 위대한 맘대표)

이상조 목사님은 투박하지만 진실함이 보이는 글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신명기에서 저는 특별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신명기 24:19-21)** 여기뿐 아니라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야 고보서 까지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으로 일관합니다.

고어헤드 이상조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요즘 보기 드문 특별한 분이시다. 나는 9년전부터 '한부모 가족 돌봄 센터 위대한 맘'의 대표로 섬기고 있다. 한 7년전쯤인데 한 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저의 이야기를 소개하신 자매님으로부터 조금 들으신 모양이다.

헌데 시종일관 저의 말을 경청하며 어떤 모양으로 저 기관을 섬길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은 가를

생각하시고 고민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다시금, 약 5년 전에 이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추운 겨울인데 갑자기 우리 단체회원들을 데리고 서울에 한 호텔로 오라는 것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난처해 했더니 우리들을 위해서 버스를 보내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는 행사에 참여했다. 여러 후원자들을 통하여 맛있게 점심을 대접하더니 경복궁과 KBS방송국을 견학시켜 주셨다. 그런데 경복궁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 한아이가 뭔가 불편해하며 짜증을 내니 이 목사님이 엎어 주신다. 그런데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 한겨울에 이 목사님의 구두가 옆이 터진 것을 신고 있었다. 눈이 왔고 살짝 땅이 녹아 질척거리는 날이었다. 그는 자신은 돌보지 않고 이렇게 '객과고아, 싱글 맘들'을 아낌없이 돌보시는 분이었다.
그 목사님께서 갑작스레 암에 관련해 시를 쓰셨다는 것이다. 추천사를 써 달라는 것이다. 다른 분 같았으면 사양했을 것이다. 헌데 이상조목사님의 부탁은 거절할 수가 없다. 꼭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의 시는 투박하나 진실성이 있다. 기교는 없으나 사랑이 있다. 맛깔스럽지는 않으나 왠지 끝까지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다.
신앙인 이라면 누구든지 일독을 해야 하는 책이라 여겨진다.

Dr. **정일봉**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 장로교 목사)

이상조목사님의 영성 깊은 본 시집의 출판을 함께 기뻐하고 싶다. 사망률 1위의 암을 '영생의 징검다리' 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름답기만 하다. 천국의 고백과 감사 앞에서는 아무리 지독한 암이라도 무력하게 된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이상조목사님의 든든한 고백들은 오늘 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구축할 힘이 될 것이다.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 시집의 시상을 따라가며 몸과 영혼이 동시에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할렐루야.

Evangelist: **Pramod Kumbhar.**
The Director of Goahead Branch in India (Southeast)

Congratulations to Pastor Philip Sang Cho Rey for this encouraging book titled "Cancer as a Steppingstone for Eternal Life"
I know this book will be greatly help those who are struggling and battling with Cancer.".

채희봉(전종교지도자,
우남 이승만대통령가족)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큰 힘인데 이상조목사님께서 출판하시는 책 '징검다리 암'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 8, 15 광복 제77주년을 맞아
초려문화재단 **이연우** 교수

이상조(Rev. Sang C Rey)목사님의 시집
'징검다리 암' 간행에 붙임

우리 목사님은 늘 자신 보다도 먼저, 하느님과 우리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곁에 한 알의 씨앗으로 싹을 띄우기까지 경건했고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그 길과 마음으로 늘 그 자리를 지켜 주셨고 우리 이웃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목회와 우리 주 하나님이 행하신 뜻대로 여기 우리 모여 함께 했으니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이상조(Rev.Sang C Rey)목사님과 예수님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겠 나이다.

Dr. **이종빈** (의공학박사.
고아헤드 사무총장)

이상조목사님의 시집 **'징검다리 암'**은 영혼의 암 치료제입니다. 뉴욕 맨하탄 1st 애브뉴 68번가 오른쪽에는 세계 제일의 암 병원이며, 암전문연구소인 메모리얼 슬로운 케터링 암센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15년간 신경외과 연구실과 핵의학과 연구실에서 연구하였습니다. 뼈로 갇혀 있는 폐쇄된 인간의 뇌 속에 암이 성장하면, 역학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뇌압이 오르게 되고, 뇌 암 주위에 함수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부차적인 결과로, 혈압도 오르게 되고, 따라서, 여러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나는 합병증을 줄이고, 뇌압을 낮추어 환자에게 수술을 받기 좋은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암이란 영속적으로 분열하는 이상세포들의 모임입니다. 쉬지 않고 분열하기 때문에, 암내부의 조직들은 채 영양분을 받지 못하여, 고사하게 되고, 암의 외부로만 많은 영양분을 제공받으며 자라고 침투하며 전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치료제를 주사해도, 치료약은 암의 내부에 효과적을 도달하지 못합니다. 슬로운 케터링 암센타에 근무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약을 암의 중심부에 보낼 수 있을지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 기술을 사용하여, 재발암의 모니터링과 팔로업에 관하여 연구했습니다. 그동안 암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공부했지만, 이러한 지식과 경험들을 이상조 목사님의 시에 접할 것을 생각하니 영감이 새롭게 살아나고, 암이 감히 삶 중에 있어야 할 하나의 필수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서양 의술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예술과 정서와 자기 확신법으로 암의 치료를 시도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여진 시처럼, 암을 시적으로 보게 하고, 시적으로 느끼게 하고, 시적으로 사유하게 하고, 시적으로 치료하게 하는 목사님의 시는 탁월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책을 진심으로 추천드리며, 암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가능성으로 동행해야 한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Challenge Maker **조영관** 박사
(사) 도전 한국인 본부 상임대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날 길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머리 들어 위를 보면 길은 있습니다.
이상조목사님의 신앙 시집이 출간된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거운 주제를 희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김소엽**(대전대학교석좌교수)
(한국기독문화총연합회장)

시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조목사님께서 암시집을 내신다고 하니 아마도 현대인들 1위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암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이 바로 곁에 와 있음을 목도하고 더욱 더 진지하게 웰빙 웰에이징 그리고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상처 입은 분들을 위로하고자 이러한 시집을 내게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십 수년 전 암에 걸려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술도 받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도 다 받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참으로 죽음과 같은 과정을 지냈지요. 그러면서 저는 암에게 타협을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내가 살아야 너도 살 것 아니냐 고 했습니다. 나를 죽여 놓고 서는 너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함께 살자고 제가 손을 내밀었지요. 사실 지금도 우리 모두의 몸 속에는 암세포가 다 살고 있지만 면역세포가 승리해서 오늘 무탈하게 지내는 것에 불과하지요. [적과의 동침]이란 영화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오늘도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상조목사님께서낸 시집이 이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목사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분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길 기도하면서 축시 한 편으로 더욱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를드립니다.

Missionary **Tukuna Kar** the Direc−tor of Goahead Branch in India (Southwest)

Congratulations Rev Dr. Phillip Sang C Rey. I appreciate your Good Work; your Book really inspire many cancer people. For This Book once more congratulations from India Missionary TUKUNA KAR India ("Thank you" from Rev. Phillip Sang C Rey) Don't say thank you pastor because really you are doing good work I thanks to God who given you a good heart to think cancer people, through this book God will touch their life may God bless you pastor

유미자 교수(소프라노)

징검다리 암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늘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싸여 주님이 우리의 주인 이시라는 진리를 잊고 삽니다. 이 책은 암의 공포와 두려움을 나의 일부로 느끼게 해주는 편안함으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고통이 감사로 변하는데 그 감사의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 인 것 같아 참 소중하게 느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 인심에도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걱정하고 근심하므로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두려워 마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처럼 이 책은 모든 공포로부터 평화를 주는 귀한 책입니다. 이상조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느라 본인을 다내어드린 귀한 목사님 이십니다. 사람을 진실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는 인간적이고 진실한분이기에 고통을 당하는 암환자를 진실로 안타까이 여기며 암으로부터 진정한 자유 함을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암은 정복하기 힘든 현대 질병으로 분류되지만 이 또한 주님이 주인 이시기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암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안에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가수. **김정은**
(마로니에 걸 / MBC복면가왕
'프러포즈', '널 사랑해' 등)

"예수님 안에서 암은 영생을 위한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기회이고 배려이다" 라고 말하며 이 책은 암의 종류와 기원 치료 방법 등을 주님의 시선으로 풀어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 내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시인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서는 암은 영생을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이며, 암은 창조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배려이고, 암을 발견하는 것은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은 나를 위한 축복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암으로 투병중이신 모든 분들이 용기와 위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싱어송 라이터 & 여행 스케치의 리더
루가 **조병석** 올림

'아임 어 암'... 이라는, 굵고 짧은 문장이 떠오릅니다. 소박하면서도 수수한 글귀들이 가슴 속에 쏘~옥 들어오네요. 애써 부연 설명이나 화장기가 다분한 수식어로 분칠하지 않아도... 마음의 울림을 주는 시어들의 따뜻한 멜로디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모든 문화 예술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주 하나님을 이상조목사님의 '암'을 매개체로 그려진 시집으로 더욱 더 찬양합니다

드림온 학교 교사. **김미니** 집사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사랑으로 늘 사역에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목사님의 시집 출간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집을 읽는 지금도 병마와 씨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환우분들께 치유의 기적과 평온한 마음을 얻는 은혜의 생수가 넘쳐 나기를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Iron Chef **김원일** 교수

이상조목사님의 책 발간에 즈음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구 역사상 최첨단을 달리는 현세계에서 책의 가치는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날의 젊은 세대는 누구나가 다 휴대폰이란첨단 AI무기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책이란 문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라도 꼭 눈으로 책을 읽고 상식과 지식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미국 속담에 '네가 먹는 것이 너다'(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듯이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동물은 모두다 안 먹고는 못삽니다. 나는 이 미국 속담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은 먹는 것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안 먹고는 못살듯이 건강한 먹거리와 운동으로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기계를 빌려서 지식을 쌓는 것 보다 책이라는 좋은 상식과 지식의 보고(寶庫: depository)를 통하여 현명한 문화를 눈으로 먹고 뇌에 입력시켜 보다 좋은 자신의 뇌를 훌륭하게 성숙시켜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조목사님의 책 출간을 축하면서.

김동완 교수
좋은사람들 상임대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상임대표 / 김대중 이희호 평화협회(DPS)공동대표 / 한반도평화를위한 락페스티발준비위원장 / 세계평화번영재단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김동완 교수입니다.
이상조목사님을 처음으로 뵐 때 소년 같은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고 첫 인상에 참 선하고 맑은 미소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적 시골 동네에서는 순진하고 맑은 미소를 가지신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를 많이 만났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이기심이 강해서인지 탁한 미소들만 가득한 분들이 많은데...
이상조 목사님은 소년 같은 맑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분을 만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통성명을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있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선한 미소를 가지신 얼굴에서 힘 있는 목소리라 속으로 짐짓 놀랐습니다. 떳떳한 삶의 살아가는 분들 만이 가질 듯한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배려심과 베풂이 불의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맑고 선한 미소와 힘 있고

강력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목사님과 의기투합하여 좋은 세상과 평화 가득한 세계를 꿈꾸었고 공동대표로 세계평화번영재단을 만들고 세계 평화와 더불어 사는 세상, 대동세상을 위해 꿈을 나누는 인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서로 못 뵌지 오랜만에 미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책을 출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목사님의 삶이 글에 담겨 있을 것이기에 가슴이 설렙니다.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새로운 책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인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 가득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수 **기현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현대인들은 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상조목사님의 시집 징검다리 암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환우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송윤면 목사 (전 기독교타임즈 사장)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며 존경하는 이상조목사님의 "징검다리 암" 신앙 시집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조목사님은 장애인 사역부터 고아들을 위한 사역까지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신앙을 실천하는 보증하는 사역자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암에 대한 두려움보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힘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inister **Thomas HemuRayamajhi**
in Nepal

Congrat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a book on Cancer by Rev. Philip Sang C Rey. I pray that God will bless all cancer patients. All the Proof Anyone could need. Condensed into this tiny Book are compelling answers to the most common Pro-choice argument, I be-lieve this book has the capacity to open the eyes and Change the Heart of Millions, A pow-erful Book that you will want to give to every-one you know. This book is an excellent re-source that does precisely that.

Finally. Bro. Hemu Thomas- Providing care for orphans, HIV Preven-tion Previous-South Asia From.

이평찬 목사(가수)
GOOD TV 선교기획본부장,
우리교회 좋은교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이사야43장21절) 말씀대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드리기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시는 이상조목사님께서 암에 대한 시집을 출판하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최고의 표현으로 목소리뿐만 아니라 춤으로 악기로 삶으로(로마서12장1절)모든 수단으로 드리는 최고의 경배인데, 시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상조목사님의 암에 대한 시집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를 보고 읽고 새기는 분마다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됨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모두가 간증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대성(Dayson)장로, 발명가

저는 2014년 1월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치료(2회)와 방사선 치료를 거쳐 주님의 은혜로 완치판결을 받았는데, 그것도 수술할 필요 없이 모든 암이 사라져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기적적인 완치판결이 있었습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절망적인 상태서 기독교 신자인 나는 신앙을 정비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할 필요 없이 완치되도록 제 몸에서 암이 사라지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차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거치는 동안 "앞으로 1주일 내 바이 탈리티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으면 더이상 생존가 능성이 없다"는 Death Point에서 입원치료를 거쳐 회복되어 최종 정밀검사를 받던 그날, 마취에서 깨어난 후 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상조목사님의 시집 “징검다리 암”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데 중심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대표 **이선자** 예일디자인그룹

이상조목사님의 시집 **[징검다리 암]**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형제들이 암으로 떠나고... 또 형제한 분이 지금 암으로 투병중입니다. 가족을 통하여 암을 보는 눈이 남다르고 나 또한 가끔은 걱정에 가슴이 덜컹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자리로 들어서지 않는 형제를 보고 수많은 좌절과 원망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시집에 암 또한 영혼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면 오히려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에 감명이 깊습니다. 나도 이 책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영생을 위한준비" 와 "전능자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기쁨을 갖고자 합니다. 나에게도 적지 않은 용기가 되었듯이 암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책에 저자인 우리 목사님에게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병선 기자 (국민일보 종교부)

주위에 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암에 대하여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조목사님의 신앙 시집 "징검다리 암"을 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암은 두려운 존재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작가의 표현에 신앙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암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일 (대한노인신문사 대표이사)

먼저 이상조목사님의 징검다리 암 시집 출간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많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신 목사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신 목사님!!

이 책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2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홍진주** (고어헤드 홍보대사)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내 몸에도 종양이 암으로 변하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수없이 우리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암의 두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절대자의 힘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조 목사님의 시집 "징검다리 암"이 더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영생을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유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권(이)영춘 화백
전 한미현대예술협회회장)

"암아! 나는 암이 무섭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 몸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상조목사님의 책 '징검다리 암' 출판을 축하를 드리며 많은 분들에게 책이 읽혀서 암 환자에 대한 관심과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안숙 (서초구의회 제8대 후반기의장)

평소 존경하는 이상조 목사님의 징검다리 암 신앙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암이란 누구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신앙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풀어 시집을 발간하신 목사님의 평소에 목회를 하시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목사님께서 이번 징검다리 암에 대한 신앙시집 출간으로 많은 분들이 암이란 존재를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며 위로가 되어 지길 기대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늘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징검다리 암 신앙시집이 널리 전파되어 지길 기원 드립니다.

하종심 권사 한국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는 안 오겠지 하는 암! 그 암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이상조목사님의 “징검다리 암” 책은 감동이었습니다. 암을 사랑하면 이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의 색깔이 너무 아름답

다고 들었는데 내안에서 함께 가자. 같이 가자 더 이상 크지만 말아다오. 이런 마음으로 징검다리 암 책을 쓰신 이상조목사님 수고 많으셨고 항상 승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인욱 시니어선교사
전월드시니어선교회 대표 /
도미니카공화국
WGM시니어선교학교 교장

인생에 있어서 암이란? 죽음을 전제로 한 암은 세상의 종말이다. 세상의 종말은 3가지로 온다. 1. 개인의 죽음... 2. 일부 집단이나 지역에 엄습하는 죽음 종말... 3.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암? 암보다도 빨리 천국에 갈수도 있다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인생에 암이 주는 교훈 그래도 시간을 주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암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병으로 시인 저자인 이상조목사님은 암에서 구원의 길을 안내한다... 부디 한 영혼 이라도 더 이 시를 읽고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탤런트 **전원주**

보고 싶은 이상조목사님!
"징검다리 암"이라는 책을 내신다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암과 가까이 살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암을 두렵지 않다고 하시니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뵙고 싶습니다. 목사님! 파이팅

정재규 안수집사
(멕시코 HOME-BAD 사장)

암이라는 상황에 슬프고 힘들어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부터 보석으로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조목사님의 신앙 시집 "징검다리 암"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제
서울영광교회 원로 목사
고어헤드선교 회지도사역자

암은 몰라도 안 되고 알아도 아프고 절망하는 우리의 대적으로 금번 이상조 목사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그의 가슴으로 싸매는 신령한 치유를 원고지에 담아 오선지로 날려 주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김 다니엘 장로
전해태그룹미주지사장
뉴저지팰팍한인교회섬김
A&P Supper 매니저

나는 영적인 아버지이셨던 봉천감리교회 김오봉 목사님을 섬기듯이 이상조목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우리 목사님의 네번째 시집 “징검다리 암”은 우리 예수님의 가슴으로 쓰셨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 또는 치료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시집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Singer and Songwriter.
Kingsley Ogunde David

My wife passed away from this world to the eternal world of cancer. Pastor Phillip Sang C Rey also attended my wife's funeral and wor-shiped. My wife lives forever with joy in a para-dise that is unimaginable on this earth. I pray that the book that Pastor Phillip publishes will be a great hope for cancer pa-tients through "stepping stone cancer". And congratul ations on the publication of his poetry book.

김공준 목사
대부천성결교회 원로 목사
전기독교대한성결교회부흥사회 대표회장

며칠 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상조목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시집을 하나 발간 하려는데 추천사를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금은 망설였다. 왜냐하면 내가 이상조목사를 개별적으로 많은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아주 친숙한 사이라 여러 면에서 표현해 잘 소개 추천할 수 있을까 염려되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 마음이 연합되고 일치됨을 서로 공감하며 만날수록 홍일권 목사님과 더불어 주안에서 형제 같은 친밀감과 우애를 느끼는 사이가 되었기에 생각해보니 내가 보고 알고 있는 면으로만 보아도 너무 소개하고 추천하기에 넘친다고 보아서 추천사에 임하는 바이며 때문에 저자에 대하여 단편적인 모습만 소개될 수도 있다는 점 이해바란다. 이상조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자주 만나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잠시 귀국할 때마다 홍일권목사님과 더불어 잠시만나 식사를 나누며 담소하곤 했다. 잠깐의 시간들이었으나 나는 이상조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다. 첫째는 진솔 함이었다. 더칠 없고 꾸밈없는 맑고 환한 밝은 자연 같은 싱그러운 말과 대화다. 말과 표현 대화는 내면의 복사다. 맑은 샘 같은 예수님 신앙 안에서 정화되어 나오는 내면의 표현된 말을 그와의 말과 대화에서 보고 느낀다. 둘째는 열정이다. 뜨겁다. 말도 풍김도 행동도 뜨겁다. 밝은 열정적 풍김이 뜨겁다. 그림자가 없다. 태양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은 그림자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뛰어 달리는 그에게서 드리워진 그림자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열정이 그를 뛰게 하고 바쁘게 한다. 하나님께서 목사인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다. 맡겨 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며 성실하게 목회한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멀리 전파하기 위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울려 퍼지도록 방송 선교에 여념이 없다. 뿐만인가 고어헤드 선교회를 이끌며 한국의 형편 어려운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매년마다 수 십 명씩 어렵게 경비를 마련해가며 미국으로 이끌고 가서 백악관이나 유명한 대학이나 큰 교회나 위대하고 저명한 곳으로 안내하여 보고 느끼게 하여 신앙적으로나 사회 국가적으로.또한 세계적으로 큰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미래의 위대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함을 본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역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그런 중에 또 시집을 출간한다고? 참 귀하다 장하다. 그런데 의아했던 것은 시집 제목이나 내용이 "암" 이라고? 통상 시집이라면 삼라만상 아름다운 자연이나 일상 인생사가 주제이기 일수인데 시의 주제가 "암" 이라고? 처음 들었을 땐 생뚱맞다 하기까지 했는데 하!! 보내준 목차와 샘플 내용을 보니 신앙적으로. 선교적으로 참으로 귀한 시집이다. "징검다리 암" 물 흐르는 개울에 듬성듬성 놓여있는 돌들은 흐르는 물길을 막고 이런저런 불편하게 하는 장애물들이다 하지만 이 돌들을 조금만 바로 줄 세워 놓으면 장애물이었던 이 돌들은 개울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가게 하는 아주 훌륭한 징검다리가 된다. "암" 이건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생애에 가장 피하고 싶은 장애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상조목사님은 이 시집에서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 장애물 암을 하나님

께로 바로 가도록, 잘 가도록 경성케 하고 준비케 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복이 된다고 읊고 있다. 현실 삶에만 매몰되어 있다가 갑자기 생의 마지막을 맞아 죽음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영생천국 하나님에게로 가 아니라 허겁지겁 영원 불 못으로 끌려 떨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찰나에 서지 않도록 경성 시키고 준비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징검다리 은혜로 읊고 있다. 준비되어있지 않은 교인에게는 개인적으로 천국 영생의 준비의 시간과, 남은 삶을 바르게, 옳게, 보람되게 살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도 거리낌없는 좋은 관계로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복된 징검다리가 된다고 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를 볼 때도 앞의 운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선교의 징검다리가 되기도 할 것이다. 장검다리는 비록 암뿐이겠는가 저자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 인생의 장애물들을 암으로 집약하여 표현하였으니 힘겨운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보면서 자신이 당면하여 짊어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장애물이 아니라 징검다리라고 예수안에 들어와 고백하고 받아들여 저자가 이 시를 기록하며 의도한대로 이 징검다리를 밟고 천국백성이 다 되기를 기원한다. 이제 이 귀한 시를 쓰도록 저자 이상조목사님에게 영감을 주시고 본질적인 참 천국의 징검다리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 안에서 장애물 암 까

지도 징검다리로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징검다리 암” 이 시가 많은 신자들에게 교훈과 경성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구원 천국의 선교가 되길 바란다. 귀한 시가 출판되어 나오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백기종 교수

TV,라디오사회부문전문패널

동국대법무대학원PIA교육과정 지도교수

이상조 목사님께서 이번에 네 번째 시집을 출판하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암에 대한시집이라고 해서 놀랐지만 목사님의 시집을 읽고 수많은 암 환우들이 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이들에게 목사님의 시집이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4번째 시집의 출판을 축하를 드립니다.

인천에서 **이규학** 감독

이상조목사님의 신앙시집 '징검다리 암'을 출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암 판정을 받고 난 후, 치료를 받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암이란 질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지나온 내 삶을 가장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게 하고,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영과 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단장을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의 철저한 회개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암의 결과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고, 영생을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이고, 창조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배려이고, 암을 발견하는 것은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다."고 말하는 저자의 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약해지는 육신과 달리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얼굴은 예수님 안에 그 영과 신앙시집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수. **윤항기** 목사

전 세계의 고아를 섬기시는 이상조목사님께서 암 환자들에게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징검다리 암'의 신앙 시집을 출판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담 이수영 시인
한국기독교문인협회 이사장

혼이 더 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집을 통해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깨뜨러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암 투병 중에 계신 분들과 암 투병 중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상조 목사님의 신앙시집 [징검다리 암] 발간을 감축드리며

구름 속에 나를 잠기게 한다
가을꽃들의 긴 허리 틈새로

우편 배달부의 자전거 바퀴가 돌고
먼 활주로 끝에서는
불꽃처럼 튀어올라
방향 잡는 비행기

그들 비행기 격납고
하나같이 쓸쓸한

노을은 품었다가도 놓아주어야 한다
출렁거리는 제 얼굴
말갛게 닦는
저녁강물
하루 한번은 나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해.
– 이수영 시 <가을 강물>

주아 이상조 목사님(시인)의 신앙시집 [징검다리
암] 발간을 감축드립니다. 이 시집은 각별한
기획으로 엮어진 영혼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시 한편 한편은 현재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바치는
믿음, 사랑, 소망의 매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디 많은 들이 행복한 거울로서의 이 [징검다리
암]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의 시집이기를 소원합니다.

탤런트 임동진목사

이상조목사님께서 출판하는 책 때문에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긴 세월 암 박사로 계시다가 하늘에 부르심을 받으신 이희대 박사님의 항상 맑게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박사님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원수로 생각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처럼 대화하고 진정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셨지요이번에 시인이면서 목사님으로 외로운 고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려 동분서주하시는 이상조 목사님께서 '암'이라는 특별한 시집을 출간하신다고 하시니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불행을 안고 사는 외롭고 아픈 고아들을 책임지시는 이목사님께서 인류에 '암"이라는 시집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학 박사.**김홍윤**장로
문학평론가. 고아헤드 사무총장

고아의 아버지 이상조 목사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 위해 죽으리라는 신념으로 사시는 GOAHEAD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상조 목사님의 네 번째 시집 '징검다리 암' 발간을 축하합니다. 화병충기(畵餠充饑) 그림의 떡으로 허기를 채우면서도 전 세계의 2억 명을 돌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중인 이상조 목사님을 오랫동안 교제하며 지내온 동안 느낀 것은 범인들의 생각과는 가치관이 다른 분임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위탁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10여 명을 매년 선발하여 미국으로 초청하여 지금까지 250여 명에게 자도자의 꿈을 가지라는 현장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면서 2주간 체류 비용과 항공료까지 부담하시며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보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낙이망우(樂以忘憂) 고아를 돌보는 일로 즐겨하시며 모든 근심을 잊고 사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전쟁고아가 없는 데 2억 명은 많지 안나요 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도 영적 고아라는 것입니다. 이 시집을 읽는 분의 삶이 도전을 받아 형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조(李相兆) Rev. Phillip Sang C. Rey. Pastor

1991년 미주월간지 《광야》
2006년 《창조문예》 등단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 문인선교회 회원
고어헤드선교회 총재
뉴저지 팰팍한인교회 담임목사
세계평화번영재단 공동대표
Become a Poet from Kwang Ya Monthly Magazine in USA
Register of a Poet through Chang-Jo-Moon_Yae
A member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A member of PEN International
A member of Christian Writers
President of Goahead Mission Inc
NJ CHO WON Lutheran Church
Co-President of WPPF(World Peace Prosperity Foundation)
고어헤드 신앙시선 001

고아헤드 신앙시선 001

징검다리 암

인 쇄 : 초판인쇄 2022년 10월10일
지은이 : 이상조
펴낸이 : 윤기영
편집장 : 정설연
펴낸곳 : 노트북 출판사
등 록 : 제 305-2012-000048호
본 사 :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56-4호 나동B101
전 화 : 070-8887-8233 팩시밀리 02-844-5756
편집부 : 010-8263-8233
이메일 : hdpoem55@hanmail.net
판 형 : 신한국판형 P184_130-210

2022.10__고아헤드 신앙시선 001_징검다리 암_이상조

정 가 : 15.000원

ISBN : 979-11-88856-53-4-03810

*저자와의 협의로 인지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저자: 이상조목사 Rev. Dr. Phillip Sang C Rey. Pastor
이메일: sangcho12@yahoo.com
전화: 1-201-852-3600
주소: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in USA